

수출 전국 2위·무역흑자 1위·GRDP 3위 빛났다

충남경제 대한민국 경제 선도
수출액 1041억 달러 사상 최대
무역수지 668억 달러 흑자
GRDP 114조 원 경기 서울 다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9개월 연속 수출 증가 전인

충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 전국 1위,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3위 등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속 사상 최고 수출 성적을 내면서 충남 수출 경쟁력을 입증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충남 수출액은 총 1041억 1600만 달러로, 역대 1위이자 사상 최초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8%나 증가했으며, 경기도(1379억 달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이다.

12월 당월 수출액은 100억 달러로 2020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성장세를 보이며, 종전 최고인 2018년 기록(76억 달러)을 압도하며 역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자동차 등 15대 주요 수출 품목이 증가하며 수출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품목별 수출액은 ▲반도체 429억 200만 달러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7억 5800만 달러 ▲컴퓨터 97억 1700만 달러 ▲석유제품 63억 6800만 달러 ▲석유화학 중간원료 23억 39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16억 1900만 달러 ▲자동차 9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AI·자율주행차 등 반도체 수요 지속 확대와 함께 서버·모바일 수요 강세, 파운드리 업황 호조세가 지속되며 12월 누계 기준 역대 1위 수출액을 달성했다.

디스플레이는 OLED TV 시장 확대, 모바일용 OLED 중 풀더블, 저전력 디스플레이 등 고기술 제품군 수요 확대로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신규 출시된 친환경차 모델 유럽 수출 등으로 12월 수출액이 늘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 269억 6700만 달러 ▲베트남 199억 8400만 달러 ▲미국 112억 9400만 달러 ▲일본 28억 1200만 달러 ▲인도 20억 4400만 달러 ▲중남미 23억 3700만 달러 등이다.

수입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40.8% 증가한 372억 4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668억 7200만 달러 흑자로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충남은 전국 무역수지 294억 200만 달러의 2배 이상 규모로, 대한민국 무역 흑자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도는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해외 시장 개척단 가동,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등을 추진한다.

또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상사무소 등을 통해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0년 기준 114조원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이다.

충남도는 “수출 1000억 달러 돌파와 무역수지 흑자액 전국 1위는 한국경제 중심으로 도약한 충남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코트라 등과 협력해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중국 269억 달러 가장 많아
베트남이 주요 수출국 부상
인도 등 신남방 시장 수출 ↑

충남 수출 현황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반도체	429억 200만 달러
평판디스플레이·센서	107억 5800만 달러
컴퓨터	97억 1700만 달러
석유제품	63억 6800만 달러
석유화학 중간원료	23억 39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16억 1900만 달러
자동차	9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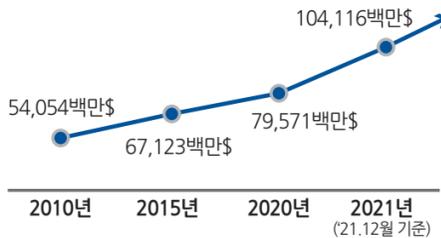
주요 국가별 수출액

중국	269억 6700만 달러
베트남	199억 8400만 달러
미국	112억 9400만 달러
일본	28억 1200만 달러
인도	20억 4400만 달러
중남미	23억 3700만 달러



완성차 출고하는 현대차 노동자들 충남 수출의 중심축인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완성된 자동차를 검수하고 있다. 충남은 자동차 부분에서 약 25억달러에 자동차와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 제공

연도별 충남 수출 현황



충남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누계)

구분	충청남도			전국순위
	20.12월	21.12월	증감률	
수출액	79,571	104,116	30.8	2위
수입액	26,446	37,243	40.8	5위
무역수지	53,125	66,872	25.9	1위

※ '21. 12월 당월 수출은 충남 100억 달러(+36.1%), 전국 604억 달러(+32.0%)

“실패해도 괜찮아”... 충남도, 청년 100팀에 3000만 원씩 현금 “맘껏 도전하세요”

청년 창업·기술 개발 도전 발판
10년간 2조 2030청년 지원
꿈비체 4000가구 추가 공급

충남도가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충남청년 미래비전 선포’하고 청년지원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청년 일자리, 집값, 영끌과 빚투 등 청년의 시련을 함께 극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충남미래비전은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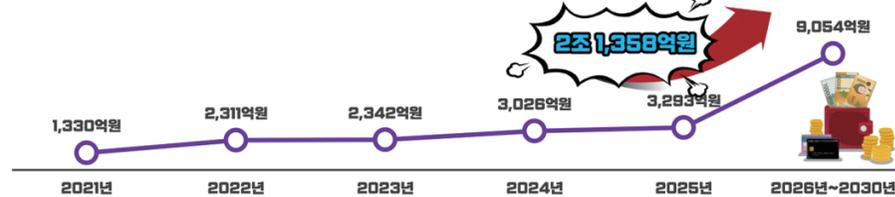
조1358억 원을 투입한다. 연평균 2100억 원, 최근 4년 연평균 투자금액 800억 원의 3배다.

도가 먼저 내세운 사업은 ‘주거 안정’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서 수요자의 힘을 키워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공공임대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체’ 공급을 1015호에 이어 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꿈비체는 보증금은 3000만 원~50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한 자녀를 출산시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전액 지원한다.

주택 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부담 금리는 0.5%에서 0.3%로 낮췄다. 주거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청년정책 투자계획(2021~2030년)



주저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것.

특히 충남도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공모를 통해 특별로 최대 3000만 원씩의 현금을 연간 100팀에 지원한다. 올해는 35개 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아울러 충남도립대 무상교육은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한다. 또 청년 희망카드는 23~25세 청년 7만명에게 연 30만 원씩 지원된다. 소요 예산은 210억 원이다.

/도정신문팀



道, 설 연휴 코로나·안전 예방 총력

방역·경제·복지 등 종합대책
방역체계 고도화, 소비촉진
안전사고 대비 강화 등 중점

충남도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고도화 등 도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방역, 경제, 복지, 재난, 환경 등 5대 분야 17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방역분야를 살펴보면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도 및 시군 17개 반과 의료기관, 질병관리청과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한다.

17팀 50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가동해 코로나19 역학조사와 환자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에도 554곳의 시군 위탁 의료기관을 운영해 도민 접종 편의를 도모하고, 응급진료를 위한 문 여는 병원·약국도 180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경제분야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등 25개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를 집중관리 한다.

이와 함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명절 전후 총 30일 동안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액 최대 1억원,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업체당 1

억 원 이내 총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복지분야는 도내 92개 사회복지시설에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3121명의 결식아동에게도 급식비 지원 및 연휴기간 급식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수단을 확보한다.

또 도내 다문화가정을 위해 6개 언어로 된 설 연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과 비상연락망을 튼튼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분야는 설 연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발방지구별대책본부, 가족전염병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도내 18개소 1만 4710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되는 화재특별 경계근무를 한다.

환경분야는 환경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다양한 생활상의 환경 민원을 일원화시킨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문 대통령 내외가 보낼 설 선물 부여 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회 각계각층에 보낼 설 선물을 청와대가 18일 공개했다. 올해 설 선물은 각 지역 대표 특산물로 구성됐으며, 충남 부여의 밤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현장 종사자 등 1만5천 명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 문화예술 기업 지원 활성화

도-문화예술위-메세나협회 협약

역 강화를 위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다.

충남도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협약 기관은 도민 문화 향유 기회 및 지역예술인 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충남메세나협회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등 지역 메세나 문화 정착에 협력기로 했다.

메세나는 사회 공헌 및 문화 경쟁

/문화정책과 041-635-3829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

최대 월 50만 원 지급

50만 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에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소독 및 물품 구입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과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신청방식은 각 시군 결혼식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 4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도내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53곳 중 지급월 기준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6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대응 총력

도-지역 의료계 긴급 간담회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오미크론 변이 분석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비한 병상 확보 및 3차 접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2월까지 병상 1165병상 확보

충남도는 지역 의료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상 확보, 재택치료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지역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달 중으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을 20곳으로 늘리고, 2월까지 총 1165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응, 도-지역 의료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83

충남문화상 수상자 작품 특별전
도청 작은미술관서 2월 18일까지

진 작품 등 최근 10년간 문화상을 수상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작품 총 30점을 관람할 수 있다.

충남도는 19일 도청 내 작은 미술관에서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자 특별전의 개막식을 열고, 2월 18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한다.

충청남도 문화상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향토문화 선양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8월부터 제60회 충청남도 문화상 후보자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서예, 공예, 사

/문화정책과 041-635-3812

설연휴로 다음 신문은 2월 15일자로 발행됩니다

2022년 2월 5일자는 설 연휴 관계로 쉽니다. 다음호(제930호)는 2월 15일자로 발행됩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정신문팀

도정만평

설인호



文대통령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요청

道, 청와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건의

▲지자체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지방 관련 국가적 의제를 논의·결정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양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탈석탄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등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사전 논의하게 된다.

충남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고시됐으나, 후속 정책 지연으로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기상청과 3개 기관 이전을 결정했듯이 충남혁신도시에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라고 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13

도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도는 정부의 ‘탄소중립에 따른 침체 우려 지역’ 지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 차원에서 100억 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지자체 간 협력 ▲국가-지자체 간 권한·사무·재원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세요

1995년 6월 이전 매매된 경우도

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운영 기간이 오는 8월 4일 마감되는 만

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외 묘지(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하면 된다.

/토지관리과 041-635-4799



4월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 시행... 전철 환승시 할인

충남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1) - 이동권 보장

도 버스비 무료화 사업 확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이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활성화·교통비 부담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시행
수도권 전철-버스 무료환승
천안·공주·아산 등 7개 시군

4월부터 어린이·청소년 무료

“충남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입니다”
충남도 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4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도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이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으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확대한다.
충남 어린이·청소년 무료 버스는 2022년 4월부터 일괄 시행된다.
충남지역 버스 학생 요금은 카드 기준 1180원으로, 도내 청소년 버스 이용 횟수로 따져보면 연간 1인당 35만 6242원을 지원받게 된다.
등·하교 시 버스를 이용하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용자 이동권 보장, 교통복지 확대는 물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인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26만 790명으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 등이다. 만 5세 이하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1일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받게 된다.
도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버스 운수회사 재정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도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도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도입·시행한 이후 2020년 7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총 대상 30만 852명 중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은 19만 7649명

으로 66.7%의 발급률을 기록 중이다. 누적 이용 횟수는 총 3261만 1082회, 1인 당 월 평균 5.5회로 나타났다.
충남형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충남에서 수도권 전철과 충남 시내·농어촌버스 간 광역 환승이 가능하다.
충남도와 인접 시·도간 대중교통 환승하는 충남형 광역환승할인제(충남형 알뜰교통카드)가 시행 중이다. 충남 시내·농어촌버스와 타 시·도 시내버스 및 수도권 전철 간 광역 환승 지원이 되는 것이다.
타 시도와 환승이 가능한 도내 천

안·공주·아산·논산·계룡·금산·서천 등 7개 시군 환승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환승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카드 소유자는 수도권 전철(천안버스는 별도 시행) 및 타 시·도 버스와 충남 버스 간 사후 환급 방식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카드 환급형 광역 환승 체계 도입은 전국에서 충남이 처음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기능인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 만큼 카드 마일리지 받는 것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역 환승이 필요한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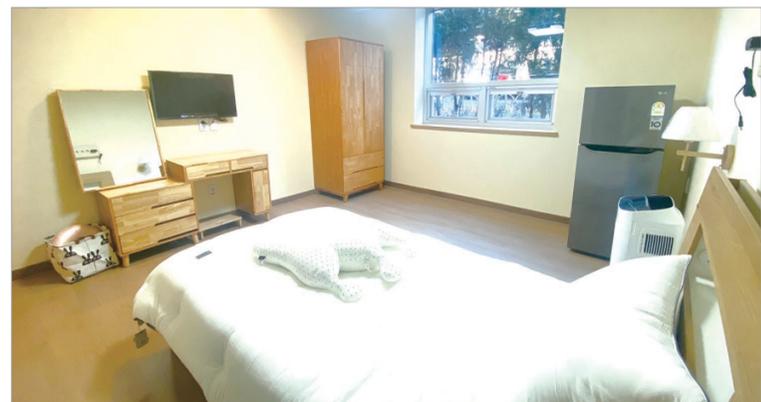
시군 및 버스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알뜰교통카드 시스템과 통합 운영되며,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소유자는 시내농어촌버스 및 전철 이용 시 사후 환급 방식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다만 알뜰교통카드로 환승기능을 이용하려면 하차 시에도 반드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발급 가능하며,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3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정책과 041-635-4564, 4567 /김정원 jwkim87@korea.kr

충남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 4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만 5세 이하보호자 동반 시 무료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	현 지원대상자 만 75세 이상 도민 등록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기대효과 이동권 보장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	---------------------------	--	---------------------------------------

도, 홍성의료원 내 공공산후조리원 문 연다

산모실, 신생아실 등 출산 환경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



홍성의료원내 개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

충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출산지원 정책 중 산모와 아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이달 중 홍성의료원 내에 개원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80㎡ 면적 규모에 산모실(8인)과 신생아실, 수유실, 상담 및 간호스테이션,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 다른 신규사업인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아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기존 출산장려정책은 확대 추진한다.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당초 셋째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시켰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확대와 동일하게 지원 횟수를 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9회, 동결배아 5회→7회)했다.
난임부부에게 한방 치료를 통해 임

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형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사업은 법률혼 부부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지원한다.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사업도 산후치료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관련 구입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2612

농어촌 인력난 협동로봇으로 해결한다

도, 미래 사업 과제 결과보고회
농업인구 고령화 문제해결 기대

충남도가 농어업용 협동로봇 개발·보급 등 미래 신성장 동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미래사업 발굴과제 기초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 박강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와 허재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현덕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박사, 조용현 순천향대 교수는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를 결합한 실감형 플랫폼 구축 ▲양자컴퓨팅 산업 거점화 ▲농어업용 협동로봇 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 스마트에너지 실증단지 구축을 미래사업으로 제시했다.
2부에서는 김희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 이주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김형철 충남연구원 박사가 ▲600년 역사도시 읍치를 활용한 지

역발전정책 ▲충남형 해양생태계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구축을 발표했다.
도는 농어업과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농어업용 협동로봇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았으며, 농어업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농가소득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을 제시한 김현덕 박사는 발전 전략으로 1단계(3년) 방제용 로봇개발, 2단계(2년) 농어업용 협동 로봇개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3단계(2년) 농어업용 로봇 플랫폼 개발 글로벌 등 단계적 추진전략을 내놴.
스마트에너지 실증단지 구축사업도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미래사업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기술 개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사업 등이다.
도는 발굴 사업에 대해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책기획관 041-635-3146

노동자 자녀 장학금 등 처우 개선한다

도-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협약 택시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충남도가 노동계와 정책 대화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노동 전환'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9일 노정 정책 간담회를 갖고,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와 '노정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는 민주적 노정관계 형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8대 과제 14개 세부 사항 이행을 약속했다. 도는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교

양강좌 및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지원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을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 전환 지원 및 노사공동 훈련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도의 금속화학 육성 기본계획 실행 시에는 노동계 참여 보장을 위해 힘 쓴다. 도는 이와 함께 복지 분야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팔을 걷는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아동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하되,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관련해서는 하역노동자 고용 불안과 임금 손실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노동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중대재해 관리 체계 마련,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03

충남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 대출한도 7000만원까지 증액

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확대도 2.9% 지원 청년 0.3% 부담

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2000만 원 늘어난 최대 7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대상주택도 1억 원 이하 주택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 3.2% 중 도에서 2.9%(최대 203만원)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0.3%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가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조건을 완화했다. 직종 구분 없이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직장인은 본인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6000-9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4일부터 도 홈페이지(생활/청년정책)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농협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차가 지원된다. /청년정책과 041-635-2294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7054회 이용 충남 임산부119구급서비스 이용 횟수가 지난해 7000회를 돌파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이용 횟수는 7054회로 집계됐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733

폐기물로 친환경 시멘트 만든다

도, 현대오일뱅크 등과 실증작업 탈황석고→탄산화물→시멘트

충남도가 도내 기업 등과 손잡고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탈황석고로 친환경 시멘트 등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실증 작업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현대오일뱅크,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11개 기업·기관과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오일뱅크는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사용해 탄산화물을 생산한다. 한일시멘트 등의 업체는 이 탄산화물을 이용해 슬래그 분말과 슬래그 시멘트, 바닥용 모르타르, 경량 콘크

리트 블록 등을 만드는 원료 실증을 진행한다. 올해 탄산화물 물성 개선, 공정 설계 및 생산설비 착공, 제품 개발 및 평가, 생산 테스트, 설비 설계 완료 및 착공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제품 시험 인증, 실증 건물·경작로 설계 및 착공, 실제 적용 건설소재 평가 등을 실시하고, 양산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번 실증이 사업화로 이어지면, 탄산화물 생산 투입 등으로 연간 34만 3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협약은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협력 ▲이산화탄소 저감 및 건설소재 사업화 실증 연구 수행 ▲제반 인프라 구축 및 행정·재정적 지원 협력 ▲실증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육성과 041-635-3929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2월 11일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충남도는 2월 11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

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도 추진한다. 다만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으며, 천안은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받는다.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충남도청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당신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	청소년상담 지원	서민 금융·법률 지원	취업·여성 지원	복지·생계 지원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청소년상담 1388 (전화상담/사이버상담/문자상담)	서민금융콜센터 139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다들어줄게 (카카오톡/페이스북/앱/1661-5004 문자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생명의전화 1588-919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여성긴급전화 1366	읍면동 주민센터
사군구정산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주거·보육·탄소중립 선도시책이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도민 삶의 질 개선한 충남형 3대 선도시책 시리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공급 행복한 임산부 지킴이 119서비스 석탄화력 조기폐쇄 2045 탄소중립

충남도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 선도적 모델을 도입·시행한다. 도민 삶의 질 개선이 출발점이다. 행복키움수당, 3대 무상교육(교육·급식·교복)에 이어 도내 어린이집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0~고3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다. 두 자녀 공짜 아파트로 알려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은 해외 주요 언론에 소개되며 이슈가 됐다. 탈석탄 금고 등 탄소중립 정책은 대표적 충남형 선도모델 국가정책으로,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 계획에 석탄화력 폐쇄 등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으로 확산되며 도민 자부심을 높여 준 충남 선도시책을 살펴본다.

입주 후 두명 낳으면 임대료 무료

충남도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안정적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 공급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충남 꿈비채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은 더 낮추고, 주거공간은 더 넓히고, 육아 맞춤형으로 안전하게 설계했다. 꿈비채 입주 후 첫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50% 지원, 2명 출산 시 임대료 전액 100% 지원해 관심을 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은 물론, 중국, 일본 등 해외 언론에서도 충남 꿈비채를 비중있게 보도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도는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조성 중인 충남 꿈비채 건설형 첫 사업은 오는 7월 입주를 목표로 6월까지 준공한다. 2월 당첨자 발표 예정이다. 천안 등 5개 지구 315호는 올 하반기 준공하며, 매입형 잔여 70호는 매입을 지속 추진한다.

0세~고3 100% 무상교육 실현

충남도는 도내 어린이집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정부미지원 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 1인당 월 추가 지원 금액은 만 3세 5만 4450원, 만 4세 3만 1240원, 만 5세 2만 1780원 등이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확대(만 5세→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 시급단가 상향 지원 ▲장애아 전담

충남형 무상보육·교육 시리즈

요람(행복키움)에서 대학(공립대 등록금)까지 충남이 책임

보육교사 수당 현실화(5만 원→10만 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 충남 도립대학교는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학년도 신입생 장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전국 공립대 최초 무상교육을 실현했다.

임산부 119서비스로 안심 출산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소방청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고 2026년까지는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 보금자리 제공

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위급상황 시 구급차 내에서 응급 처치와 분만을 돕는다. 지난해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이용 횟수는 705회로 집계됐다. 현재 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와 영아 모두가 이용 가능하다.

석탄화력 폐쇄·탈석탄 금고 도입

도는 탄소중립 실현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긴다. 도는 지난해 말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분만의로 취약 지역 임산부 보호

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5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5기 폐쇄 등도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도는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선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아시아 최초 탈석탄동맹 가입, 국내 최초로 언더투연합에 가입했다. 2019년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제로 구상을 이끌어 내 바 있다.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견인하고,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김정원 jwkim87@korea.kr

AI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추가 유입 차단위해 방역 유지

충남도는 20일 0시를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농장에서 반경 10km내 가금농가 및 시설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

분 등 조치 이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내 516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지난 13일 아산 곡교전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해서는 반경 10km내 가금

농가를 야생조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가금농가에 전담관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한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주요축종에는 통제초소 설치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주변도로, 인근 가금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5

도 농업기술원 농업인교육 시작

스마트팜 등 분야별 3485명 교육

충남도농업기술원이 올해 미래 농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 3400여 명을 육성한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6분야 77과정 348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농업인공모교육, 스마트팜기술교육, 농업인실용교육, 농산업기계교육, 귀농교육, 전문심화(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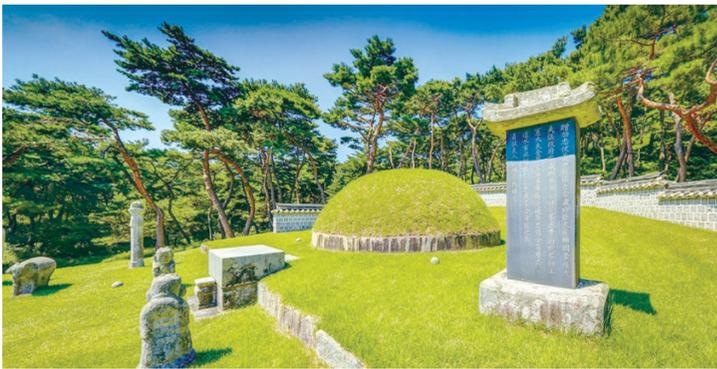
업인·귀농·마이스터대학) 등이다. 교육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교육신청은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cnnongup.chungnam.go.kr>) 및 도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041-635-6201-13),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식량원예과 041-635-2521

청렴한 공직생활, 남은 출장비는 반드시 반납했다

총무공 이순신 이야기

아산에서 청소년시절 보내고 결혼, 무과급제때까지 지내 서산 해미서 군관으로 근무



아산 아라산 이순신 장군 묘소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분은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54년의 짧은 생애 중 22년간의 관직 생활을 하면서 임진왜란 때 침략일 본군을 크게 물리치는 등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신 분이다.

이순신은 서울(당시 한성)에서 태어났지만 아산으로 이주하여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아산을 본향으로 삼아서 무관 생활을 하였다. 이후 근무지에 따라 전국 곳곳을 다녔는데, 오늘날 도(道) 단위로 근무지를 본다면 서울·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이고, 북한 지역으로는 함경도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는 이순신의 발자취가 다수 남아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관련시설도 많다.

충청남도에서 이순신이 인연을 맺은 곳은 아산과 해미이다. 아산은 이순신이 청소년 시절과 결혼, 무과 급제에 이르기까지 지냈던 보금자리였으며, 이후 관직 생활 중 파직이나 휴직, 백의중군 중일 때 일시적으로 귀향하여 재충전을 한 본향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산의 아라산 묘소는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후 영면하고 있는 곳이며, 현충사는 이순신을 모신 국내 최대 규모의 사당이다.

다른 한 곳은 관직생활 중 세 번째로 근무한 서산시 해미이다. 이순신이 35세 때 근무한 해미에는 충청도병마절도사영이 있었는데, 이순신은 충청병사의 군관으로 근무하면서 극히 청렴한 생활을 한 곳으로 유명하다. 당시 이순신이 거처하던 방에는 옷과 이불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없었고, 출장을 다녀오면 남은 출장비를 반드시 주관자에게 반납했다는 일화가 있다. /제정명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청년농업인 정착 사례집 발간

도 농기원, 정착 과정 담아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추진한 청년농업인 컨설팅 사업의 우수사례를 모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컨설팅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청년농업인이 창농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컨설팅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이 담겼다.

컨설팅 추진사례와 성과분석 결과가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 만큼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사례집은 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cnnongup.chungnam.go.kr) 농업기술정보 메뉴에서 간행물자료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041-635-6092

탄소중립시대 산림정책 방향은?

충남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지난 14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현황과 역할을 평가하고, 탄

소중립 시대의 바람직한 연구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로 나선 충남연구원 박춘섭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산림정책 및 사업의 중심기관인 연구소 발전의 중심 키워드로 연구·기술·공유 전략을 제안한다”며 “세부전략으로 연구·산림연구분야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충남연구원041-840-1192



충남 농식품 수출 '사상 최고' 경신

지난해 수출액 전년 비 27%↑
증가율 전국 1위 4년 연속 상승
인삼, 로얄제리 건강식품 수요 증가

충남도 내 농수축임산물(농식품) 수출이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작성했다. 지난해 총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27% 급증하며,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4년 연속 수출 증가를 일궈냈다.

도가 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식품 수출액은 총 6억 7150만 9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억 2890만 7000달러에

비해 27% 증가한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90억 4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2억 3200만 달러로 13% 증가했다.

도내 농식품 수출은 또 2017년 3억 7256만 달러, 2018년 4억 2262만 달러, 2019년 4억 3687만 달러 등으로 4년 연속 상승을 이어왔다.

품목별로는 인삼류가 2020년 1억 295만 8000달러에서 지난해 1억 2238만 달러로 18.9% 증가하며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로얄제리는 4560만 6000달러에서 1억 1599만 9000달러로 무려 154%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면역력 증진 관련 건강기능성 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은 2212만 1000달러에서 4495만 달러로 103.2%, 기타수산물가공품은 8921만 9000달러에서 1억 1162만 8000달러로 25.1% 늘었다.

반면 배는 해상 컨테이너 부족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136만 2000달러에서 지난해 2764만 8000달러로 11.8% 감소했다.

딸기도 국내 생산량 감소와 항공 운임 상승에 따라 170만 3000달러에서 169만 5000달러로 0.4% 줄었다.

도는 올해 농식품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고, 수출 물류비 지원, 농식품 해외마케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63

충남 119구급대 2.8분 마다 출동했다

지난해 18만 7250건 달해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 119구급대가 총 18만 7250회 출동해 9만 6366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매일 513건씩 출동해 264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2.8분마다 출동한 셈이다.

코로나19 확진자 6252명과 의심 환자 1만 125명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안전하게 이송됐다.

환자 유형별로는 질병 환자가 6만 2059명으로 64.4%를 차지했으며, 사고부상이 1만 8039명(18.7%), 교통사고 환자가 1만 861명(11.3%)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712

도, 어촌산업 발전에 466억 투입 간편·편의식 수산식품 개발 등

충남도가 균형 있는 어촌 성장을 위해 올해 52개 사업에 466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생활거점 중심의 어촌특화마을 조성, 도서 거주 어가에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등 82억 원을 지원해 어촌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한다.

또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민 어촌 유치 확대, 어촌지역 리더 육성 등에 71억 원을 투입해 어촌 6차 산업화와 귀어 어업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수출상담회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소비자 수요에 맞춘 간편·편의식 개발과 가공 기반 구축, 수산시장 시설 개선 등에도 225억 원을 지원한다.

/어촌산업과 041-635-2781



보령해경 선박 안전관리 철저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보령해경이 계류 선박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보령해경

국가 보증씨수소 명칭 '충남한우'

한우산업 성패 우수종자 보유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백차현)는 지난해 국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연구소 자체 생산 한우 2두의 명칭을 '충남한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보증씨수소는 대한민국 수소를 대표해 전국 번식 암소를 대상으로 정

액을 공급하는 보증종모우를 말한다.

선발된 국가 보증씨수소는 2018년 전국 우량송아지 450두 중 후보씨수소로 선발된 후 약 3년간 후대능력치를 검증해 최종 선발된 보증씨수소 18두 중 두 마리에 해당하는 최우량 씨수소이다.

보증씨수소 명칭은 '충남한우-1호(KPN-1461)', '충남한우-2호(KPN-

1463)'로 앞으로 우량종자 보급을 통한 도내 한우농가 종자 개량 및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한우 1, 2호는 도내 한우농가에 3년간 약 10만 스토의 정액을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도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 축산기술연구소 041-635-7822

책 읽는 충남, 함께 읽어요

도서 대출 전년 비 53% 증가

국민 독서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도서관의 도서 대출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서관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 대출건수는 34만 882권으로, 전년 대비 53.1%(12만 1039권) 증가했다. 누적 대출권수도 100만 권을 돌파

했다.

충남도서관은 사서 중심의 독서마케팅(RWS)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독서마케팅 사업은 충남도서관이 도민의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사서 1독서동아리 운영(Reading), 사서 서평(Writing), 사서

고생(Speeching) 강연, 책 읽어주는 사서(Speeching) 강연 등 4개 프로그램이다.

실제 강연도서에 대한 대출률을 분석한 결과 책 읽어주는 사서에서 다른 12권의 도서는 2020년 314회 대비 지난해 1272회 대출돼 전년 대비 526% 증가했다.

나병준 관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독서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서관 041-635-8041

충남도서관 이용자 80% 만족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호응

충남도서관은 올해 개관 5년차를 맞아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남도서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부터 26일까지 도민과 도서관 이용자 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80.3%(대우만족 46.6%, 만

족 33.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 입 등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응답이 64.6%,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64.4%로 조사됐다.

/충남도서관 041-635-8066

문짜도 문화재 일부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충남의 도난문화재

논산 충헌공 윤전 재실 문짜

2011년 재실 문짜 6점 도난

안방 3점·사랑방 1점·별채 2점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추정

2011년 5월 어느 날, 충남 논산시 병사리에 위치한 한 재실에서 문화재 도난사건이 일어났다. 도난 문화재라면 으레 오래된 금관이 나 불상, 도자기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에서 도난 된 것은 다름 아닌 건물의 일부인 '문짜'이었다. 도난 된 문짜는 모두 6점으로 재실 내부의 안방 문짜 3점, 사랑방 문짜 1점 그리고 별채 문짜 2점이었다.

문짜가 도난당한 곳은 파평윤씨 충헌공 윤전(1575-1637)의 재실로 충남 문화재자료 350호로 지정되어있다. 이는 조선 중기 문인인 충헌공 윤전의 묘를 관리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지은 건물로,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19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윤전은 광해군 2년(1610년)에 문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갔으나 당쟁으로 파직과 복직을 거듭하였다. 특히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 때에는 공주로 피난하는 인조를 모셨고, 1627년 정묘호란 중에는 김장생의 종사관으로 활약하기도 하였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적병에게 피살됐다. 사후에는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충헌'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처럼 윤정은 우리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 한 인물로, 윤전 재실은 그를 기리는 많은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부속품인 '문짜'의 도난으로 원래의 멋과 의미를 잃은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재 도둑들은 이 문짜를 왜 가져간 것일까? 범인(凡人)의 입장에서 범인(犯人)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에 고(古)건물 문짜 등의 부속품들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니, 그런 이유로 범인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따름이다. 충헌공 윤전 재실의 도난품은 다른 도난문화재와 비교하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문 한 짝이라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윤전 재실의 도난당한 문짜들은 새로 원래의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 다시 달아 놓은 상태이지만, 원래의 멋과 의미는 다시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진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논산 충헌공 윤전 재실



충남도, 서산공항 예타 마지막 관문 통과에 총력

도, 전문가 TF 꾸리고 용역 추진
항공사 유치, 범국민 홍보 집중
예타 통과 시 2026년 개항 목표

충남도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대응을 강화한다.
서산공항이 예타를 통과하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착공, 2026년 개항이 목표이다.

도에 따르면 충남 서산공항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재정부 예타를 진행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 중인 예타는 여객 수요와 사업비, 편익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5월 중간회의와 7월 최종회의를 거쳐 9월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항공 관련 관계 기관과 대학 등의 인사로 전문가 그룹 TF를 구성, 추가 항공 수요 산출과 경제성 논리

개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또 여객 수요 및 사업비 분석 등 경제·정책성 평가에 대비해 향후 6개월간 대응 용역을 추진한다.
항공사 유치를 위해 국내 지방공항 항공사 유치 사례, 항공사 지원 조례 등을 분석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취항 의향을 표명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서산공항 사업 계획 설명 등을 진행한다.
정책성 평가 시 지역 여론이 평가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예타 연구진 현장 조사 등에는 도 지휘부가 직접 나서 설명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힌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선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검

토 용역에서는 해미 공군비행장 주변에 터미널과 유도로, 진입도로 1.4km 등을 짓는데 사업비가 509억 원이 소요되며, 경제성(B/C)은 1.32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정부예산안(2022년)에는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되고, 같은 해 9월에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이 '일반 공항 개발'로 포함됐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95



직접 만든 빵 아동보육시설에 나눔
충남도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 43명이 13-14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서 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지난해 12월 개소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희망나눔플랫폼에서 쿠키 200개와 머핀 250개 두 종류의 빵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했다. 대학생들이 만든 빵은 일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예산보건소 의료진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보육시설에 전달한다.
/자치행정과 041-635-3595

창농·딸기학과 신입생 모집합니다

도 농기원, 농업인대학 110명 선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 18일까지 영농심화과정으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신입생은 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 창농학과, 치유농업학과 각 30명, 귀농대학 딸기학과, 청포도학과 각 25명씩 총 110명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청년농업인 창농학과는 청년농업인정책의 이해, 창농 계획 수립 및 발표, 개인별 롤모델 농장 현장학습 등을 교육한다.
치유농업학과는 치유농업의 개념과 적용사례, 운영기술,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강의한다.
귀농대학은 작목별 선도 농가를 현장 교수로 지정해 작목순기별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딸기학과는 육묘부터 수확까지, 청포도학과는 토양관리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연간 50시간 내외로 운영한다.
입학 신청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을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귀농대학은 귀농자 외에 작목도입 신규자(귀농 예정자)의 입학 신청도 받는다.
모집공고는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cnnongup.chungnam.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도 농업기술원 041-635-6203

도립대 10명 중 6명 충남 취업 원해

졸업예정자 취업인지도 조사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 졸업예정자 10명 중 6명이 충남지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립대 취업지원처는 2022학년 2월 졸업예정자 2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충남지역에 취업을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59.2%(1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범위를 충남·북, 세종, 대전으로 확대하면 79.8%(198명)가 '충청권

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졸업예정자에게 충남 또는 충청권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를 묻은 결과, '집 근처'라는 답변이 69%로 가장 높았다.
실제 응답자의 현 거주지는 74.5%가 충남이며, 충청권으로 확대하면 85%로 늘어난다.
한편 최근 3년간 충남도립대 졸업자 취업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에 2018년 53.1%, 2019년 50.8%, 2020년 51.3%가 취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립대 041-635-6628

“농촌정착 위한 역할 다할 것”

신임 4-H연합회장에 박덕영 씨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4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4-H 연합회장 이·취임식 및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지난 1년간 4-H회 경쟁력 강화와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적극 영입해 농촌활력 증대 및 발전에 이바지 해 온 김요환 회장이 이임하고, 제66대 회장으로 박덕

영(30·사진) 씨가 취임했다.
신임 박 회장은 “도 4-H회원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듣고 농촌정착과 농촌활력화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 041-635-6152



충남 독립운동 연구 다각화

역사문화연구원·백석대 협약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조한필)은 지난 12일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소장 박종선)와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지역인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계·협력 ▲전문 인력의 상호교류 및 연구과

제 공동수행 ▲세미나, 워크숍, 포럼 공동개최 등으로 양 기관이 충남의 독립운동가 연구와 충남형 지역인재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해 서산·천안 지역의 숨은 독립운동가 900명을 발굴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41-840-5045

기름 짜고 나면 남는 깻묵

충남의 맛 - 깻묵장
음식 풍미 증가시켜 간장 대용
혈관 청소 불포화 지방산 역할

충남 서산 마룡리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모여서 나무 기름틀로 들기름을 짤다.
장정 서너 명이 올라가서 힘껏 누르면 압착되어 기름이 흘러 나온다. 이것이 전통적인 기름 짜는 방법이다. 기름을 짜고 나면 기름틀 모양의 들깨박이나 참깨박이 남는다.
이것을 우리말로 깻묵이라고 하는데 제법 영양가가 높다. 먹고살기 힘들던 옛날 어린 시절 기름을 짜고 난 깻묵은 간식거리였다.
메주 썰 때 콩과 메주를 함께 섞어서 메주를 띄워서 만든 장을 '깻

묵장'이라고 하는데 된장의 구수한 맛과 깨의 고소한 맛이 함께 어우러진다.
또 다른 방법으로 깻묵 가루를 간장에 넣고 남은 메주에 버무려 소금을 넣고 20일 정도 숙성시키면 구수하고 개운한 맛을 내는 간장이 되는데 아무 음식이나 잘 맞고 그 음식의 풍미를 증가시켜 준다. 밥을 비벼 먹기도 하고, 간장 대신 사용해도 좋다.
들깨와 참깨 기름은 섭취되고 나서 몸 안에서 액체로 존재하여 딱딱한 돼지기름이나 소기름을 녹여서 혈관을 청소하여 주는 역할을 하여 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준다.
용액상태의 불포화지방산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패되어 식용할 수 없지만 깻묵을 메주에 넣어서 된장으로 담그면



충남 서산 마룡리의 깻묵장
뽀얀맛 성분이 변하여 된장에 새로운 풍미를 준다.
산패된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맛과 냄새를 내지만 메주 곰팡이가 생성하는 항산화물질과 효소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이 방지되고, 메주 곰팡이가 만든 효소가 소화하기 힘든 깻묵 성분을 분해하여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 준다. 그래서 일석 삼조의 효과를 낸다.
깻묵장은 우리 충청 조상님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음식이다.
/구경완 호서대학교 산학융합대학원장

충남 평생교육 정책보고서 3종 발간

도민 학습동아리 활동 분석 등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조이현)은 충남형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충남 평생학습동아리 실태조사, 2021년 충청남도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등 2021년에 수행한 3종의 정책연구 및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형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기

간(시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활용할 수 있다.
충남 평생학습동아리 실태조사 연구는 충남 평생학습동아리 현황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학습동아리 참여 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ile.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041-635-1204

삼천궁녀 등 백제사 왜곡 바로 잡는다

부여군 사비백제사 출간

“삼천궁녀, 삼천은 ‘많다’ 표현 ‘조룡대’는 백제의 패배로 표현 왜곡된 백제사 재정비 나서

[부여] “‘삼천궁녀’란 표현에서 숫자 삼천은 ‘많다’는 뜻으로 역사적 근거가 없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아 백마강을 건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조룡대’는 용의 죽음을 백제의 패배로 표현한 것이다.”

부여군이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사비백제사 재정립 사업의 하나로 다음 달 출간하는 ‘사비백제사’ 3권에 수록된 내용이다.

사비백제사 집필에는 편찬위원장인 성정용 충북대 교수를 비롯해 권오영 서울대 교수, 정재윤 공주대 교수, 김낙중 전북대 교수, 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 등 국내 백제사 전문가 40명이 참여했다.

사비백제사는 3권으로 구성된다. 1권과 2권은 사비천도 배경과 성왕, 사



부여 백마강 조룡대 군은 사비백제사 집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백제학회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수차례에 걸쳐 기획 회의와 편찬위원회, 집필진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비도성의 의미,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다뤘고, 사비백제사의 핵심인 3권의 의자와와 백제가 간직하고 있는 왜곡된 이야기의 재평가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김흔의 시에서 처음 언급된 ‘삼천궁녀’란 표현에서 숫자 ‘삼천’은 ‘많다’는 뜻으로, 역사적 근거가 없는 단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에는 낙화암 삼천궁녀 표현이 보이지 않

며, 시적 수사로 표현된 허구라는 게 집필진의 설명이다.

‘조룡대’ 역시 승자와 패자의 관계 속에서 용의 죽음을 백제의 패배로 나타낸 것으로 문헌적으로 재생산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비백제사는 백제 멸망 후 1500년 만에 왜곡된 백제사를 우리의 시각으로 새로 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정신문팀

내포신도시에 9홀 대중골프장 들어선다

예산군, 실시계획 승인

면적 38만㎡, 연말 준공계획

[예산] 내포신도시에 9홀 골프장이 들어선다.

최근 예산군은 사계절(대표 김건우)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 계획시설인 골프장은 지난 2009년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함께 결정됐으며, 이번 실시계획 인가된 부지는 모두 38만2455㎡ 규모다.

체육시설 용지 17만5083㎡, 건축 시설 용지 6800㎡, 도로 등 기반시설 용

지 5만8298㎡, 녹지용지 14만2274㎡ 등이다.

골프장은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내달 착공해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군은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도정신문팀

천안은 독서 열기, 온도탑 137℃

한 해 205만 권 읽어

[천안] 천안시중앙도서관이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설치한 천안시 독서 온도탑 온도가 2021년 목표 100도를 훌쩍 넘긴 137도(205만3533권)를 달성했다.

천안시민들의 독서량을 측정해 온도로 나타낸 ‘독서 온도 탑’은 매월 천안시 소재 12개 공공도서관의 종이책, 전자책의 대출 권수를 합산해 온도로 표시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서관 휴관으로 97도(145만9770권)에 그쳤으나, 지난해 9월에 100도(150만3533권)를 넘어서 목표치에서 37도(55만3533권)를 초과한 것.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민들의 높은 독서 열기에 힘입어 목표를 달성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독서 마라톤, 시민 독서 릴레이, 북스타트 등 독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제공



신부동 터미널사거리에서 설치된 독서 온도탑 최종 온도

당진 장고항, 수산물 ‘허브 도시’로 만든다

(주)얌데이블과 업무협약

수산물 물류 중심 도약 기대

[당진] 당진시가 장고항을 전국의 수산물 물류허브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최근 당진수협 청정 위판장 구축과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주)얌데이블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장고항 청정 위판장에 수산물 판매전문 쇼핑몰 입주는 물론 대형화된 물류창고가 집적된 풀필먼트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물류창고로

방식이다. 장고항 국가어항 청정위판장 건립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며 당진 수산물의 경쟁력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 제공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 허브로 추진하고 있는 당진 장고항 국가어항 단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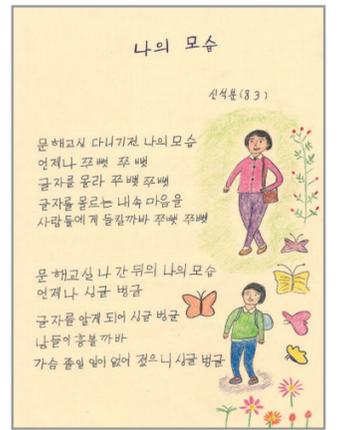
83세 석분 할머니의 배움의 기쁨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청춘페이지

- 신석분 님의 ‘나의 모습’

여든 넘어 글 배운 老學

기쁜 나의 모습 시로 표현



‘글자를 몰라 주뻔, 들킬까봐 주뻔’

여든셋의 신석분 할머니의 시 제목은 ‘나의 모습’입니다. 소박하지만 시 속에는 석분 할머니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한글을 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람들에게 들킬지 몰라 주뻔했다는 고백입니다.

고된 인생살이에 한 생애 눈물로 세월을 보내신 어머니. 자식을 위해 헌신과 속움음으로 평생을 사셨던 어머니입니다. 배고픔에 견뎌야 했던 시절, 배움은 분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글자를 몰라 평생을 주뻔하였던 석분 할머니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몇 년 전 예산군 석곡1 문해교실에 나가 배움의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글자를 쓸

줄 알게 됐을 때 기뻐하셨을 할머니의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패어 늙음이 서럽게도 찾아왔건만 팔손 넘어서야 글을 알고 시도 지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흡족한 표정이 시에 담겼습니다.

‘글자를 알게 되어 싱글벙글’ ‘가슴 졸일 일이 없어 싱글벙글’. 석분 할머니께 ‘배움에 늦음이란 없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老學의 할머니는 오늘도 하얀 잇속을 드러내며 함박웃음 짓습니다. 가슴 졸일 일이 없어졌으니

/도정신문팀

국가직 9급 공채에 고교생 합격

당진정보고 이성은 학생

내신 등 꾸준한 준비가 비결



학했다. 처음엔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학교생활을 시작했다는 성은 양은 주변의 조언에

[당진] 당진정보고 3학년 이성은 학생이 ‘지역인재 국가직 9급 공채’에 합격했다. 지역인재 국가직 9급 공채는 학과 성적이 우수한 특성하고·마이스터고 학생을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마친 뒤 6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면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성은 양은 수석으로 정보고에 입

공무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입학 당시 1등을 졸업까지 이어가자는 목표로 내신 관리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 자격증도 틈틈이 취득했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등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한수미/당진시대

송산농협에 다녀간 ‘동전기부 천사’

익명의 시민 27만원 저금통 기부

있었다.

[당진] 송산농협에 익명의 시민이 저금통에 든 27만 원을 기부했다. 송산농협 임직원들은 여기에 마음을 모아 500여만 원을 당진시에 기부했다.

송산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오후 누군가가 두고 간 동전통이 발견됐다. 동전통 옆에는 전표 뒤에 ‘발우기부’라고 쓰인 메모지가 함께 놓여

동전통을 확인해보니 27만620원이 들어 있었고, 익명의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송산농협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송산농협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 414만5000원과 사랑의 동전함을 더해 503만 원을 당진시에 기탁했다.

임아연/당진시대

계룡소방서, 드론 띄워서

7층 빌딩 외벽 고드름 제거

[계룡] 계룡소방서가 빌딩 외벽 대형 고드름을 드론을 이용해 안전하게 제거했다. 지난 10일 강추위로 생긴 빌딩 고드름은 건물 7층 외벽 배관에서 누수된 물이 지상까지 흘러 내리면서 생긴 것. 구조대는 드론을 이용해 고

드름 규모와 거리 등을 실측하고 행인 통제 후 고드름 제거기로 안전하게 제거했다. 지상의 고드름은 기온이 올라가면 자칫 녹아내리면서 아래로 추락해 시민들에게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중요하다.

한경남 현장지휘팀장은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소방서 제공



홍성 남당항 새조개 맛보러 오세요

온라인축제 3월까지 개최
예년에 비해 '크고 튼실'

[홍성]홍성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상운)는 새조개 제철을 맞아 3월 30일까지 '제19회 홍성 남당항 온라인 새조개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다른 부대행사 없이 온라인으로만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새조개축제'를 검색하거나 공식쇼핑몰에 접속하면 새조개 샵샤브 밀키트를 구입해 가정에서 맛볼 수 있다.

올해 새조개 가격은 1kg 당 6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온라인 판매상품에는 새조개 1kg을 비롯해 바지락 200g, 배추, 무, 양파, 팥이버섯, 대파 등 육



홍성 남당항 수산물 시장에서 식당주인이 새조개를 보이고 있다.

수용 어패류와 야채, 초장 등이 함께 바가 없어 자연산만을 유통하고 있어 동봉돼 있다. 식감과 풍미가 뛰어나다.

새조개는 아직까지 양식은 성공한

한관우/홍주신문

공주시 밤라떼 '밤여유(乳)' 출시

우유에 공주밤 첨가

[공주]공주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에 공주밤을 첨가한 밤라떼 '밤여유(乳)'가 새롭게 출시됐다.

'밤여유(乳)'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에 공주밤을 첨가한 밤우유 즉 밤라떼다.

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을 위해 매년 공주알밤 전국요리대회를 개최 중인데, 이번 공주알밤우유는 지난 2020년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리법을 활용했다.

화학첨가물을 전혀 쓰지 않고 순수한 우유와 밤을 첨가한 것으로, 건강



공주시가 출시한 밤여유를 생각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간식거리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알밤우유는 현재 지역로컬푸드 매장 및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 중이다. /공주시 제공

천안형 청년 도전 프로젝트 1억 공모전

청년이 정책 제안 실행까지

청년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

[천안]천안시가 2022년 '천안형 청년 도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문제를 청년이 스스로 발굴 기획하고 개선방안까지 도출해 제안자가 실행하도록 운

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이다.

공모 주제는 지역의 공공 과제 및 청년 문제 해소 방안, 코로나19 극복 사업 제안, 청년정책 홍보, 청년문화 활성화 등이며 그밖에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 또는 천안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

체·사회적 협동조합 등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3일까지이며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2명 50만원, 장려 2명 30만원 시상금을 받게 된다.

시는 우수 제안 내용 중 총 1억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천안시 제공

지역화폐 10명 중 6명 골목상권 사용

굿뜨래페이, 사용처 다변화

음식, 의류 등 비중 8.1% ↑

[부여]충남 부여 지역화폐 굿뜨래페이가 굿뜨래페이 사용자 10명 중 6명은 골목상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출 총량제'를 실시해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서 굿뜨래페이를 사용할 경우 3~6%의 차등적 소비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용자 사이에서 공동체 화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매출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점차 굿뜨래페이 전체 사용 비중에서 골목상권의 비중은 늘어난 것

2020년 1분기 골목상권 비중은 48.5%에서 2021년 3분기에는 61.2%로 12.7%p 늘었다. 반면 규모 경제주체는 2020년 1분기에 44.1%였으나 2021년 33.7%로 10.4%p 줄어 들었다.

사용처도 다변화돼 음식점과 의료, 의류의 사용 비중은 8.1% 증가하는 등 균형 있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부여군 제공

서산 농특산물 국내외 쇼핑몰로 사로잡는다

'서산 트레몰' 설 기획전

미국·베트남 온오프라인 공략

[서산]서산시는 설과 추석, 김장철, 농특산물 출하기에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판촉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실시간 구매정보 등의 라이브 커머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우체국 쇼핑몰과 G마켓, 11번가 등 제휴 몰에 '서산 농특산물 브랜드관'



서산 특산품으로 구성된 명절 선물세트

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도 쇼핑몰 '농사랑'에 계절별

서산 상품 특판전을 열고, 시 직영 '서산 트레몰'에서 할인판매도 한다.

지난해 충청지역 최초로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최대 쇼핑몰 '올타리 몰' 입점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현지 온·오프라인 판촉전도 열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베트남 온라인몰에도 입점한다.

시는 지난해 온라인몰 등 비대면 판매로 지역 농특산물 2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서산시 제공

금산군, 경로당에 찾아가는 치매검진

치매 협력병원과 연계

[금산]금산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금산을 경로당 100여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무료로 시행한다.

이번 검진은 코로나19로 인해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고위험

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와 신경 인지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받은 주민이 치매로 진단될 경우에는 원인 확인을 위해 협약병원으로 지정된 새금산병원에서 뇌영상 촬영(CT)과 혈액 등 검사를 진행하며 비용은 무료다.

/금산군 제공

충남 첫 마을 수익형 태양광발전소 가동

공주 정안면 어물리에 설치

연 780만 원의 수익 예상

[공주]충남에선 처음으로 주민수익형 마을 태양광발전소가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마을에 건립돼 가동에 들어갔다.

충남도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주민이 사업 주체

가 돼 마을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뒤 전력을 판매해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

충남 최초의 주민수익형 마을 태양광발전소는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30kW의 태양광발전소가 마을창고 지붕에 설치됐다. 연간 78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발전수익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마을 복지사업 등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공주시 제공

금산군 인삼 미국 수출길 오른다

5개 업체, 23개 품목 선정

농산물 123만 달러 '수출길'

[금산]금산인삼을 포함한 23개 품목 13만 달러 상당 농산물이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 7일 금산약초인삼농조합법인(조합장 정영석)은 미국 Hmart를 대상으로 금산군 5개 업체, 충남도 5

개 업체가 참여한 수출선적식을 개최했다.

미국 Hmart는 지난 1982년 설립해 미국 12개 주에 7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산 농식품을 필두로 아시아 식품매장을 구성했다. 지난해 8월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초청 수출 상담회에 참여해 50만 달러 상당 수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군은 "앞으로 금산 인삼이 해외시장



수출용 금산 인삼을 세척하고 있다.

에서 경쟁력을 갖춰 수출이 증진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군 제공

최대 5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천안·아산]천안시와 아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개 업체 5000만 원까

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루어진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천안시는 이번 50억 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 원 대출을 지원하게 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산시도 올해 1차분 30억 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확보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뒤 협약을 통해 연간 36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041-559-3900)으로 하면 된다.

아산지역 신청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염치읍 소재)에 접수 가능하다.

/도정신문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서산]서산시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

구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2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 신청하면 된다. /서산시 제공

매머드급 축제가 충남에 상륙한다

올여름엔 보령머드 축제장으로 모여라!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서해안권 최초 국제 해양박람회로
해양新산업 미래자원 가치 재발견
국내외 해양 치유산업·웰니스 풍성
'아시아 3대' 보령머드축제 통합개최

서해안권 최초의 국제 해양 박람회가 충남 보령에 상륙한다. 머드·해양 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글로벌 축제로 자리 잡은 보령머드축제가 한데 어우러져, 그야말로 매머드급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충청남도과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2보령 해양머드박람회가 오는 7월 16일~8월 15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개최된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해양머드 신산업과 머드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관광객,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머드산업의 발전과 해양 신산업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해양머드주제관 등 6개 관과 ▲K-culture 관으로 구성된다. 주제관에서는 머드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기술로 머드산업을 재해석해 전시한다.

해양머드&신산업관에서는 해양 신산업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통해 미래자원과 신소재 산업으로서 해양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해양머드웰니스관과 해양머드체험관에서는

신체 부위별 세분화된 스파부터 아토피관까지 풍성한 개인맞춤형 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이 기다린다.

해양머드주제관은 실감 미디어 콘텐츠로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이고 가상현실(AR)을 통해 머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가치를 그럴 예정이다. 해양머드 체험관을 찾는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맞춘 해양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산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해양직업 체험을 통해 직업으로서 해양산업의 가치성을 탐구할 수 있다. 해양머드공영관에 마련된 해저 가상공간에서는 MR(혼합현실)시스템 기반 홀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K-culture 관에서는 충남도 15개 시군의 문화·예술·관광 등 지역특화콘텐츠가 전시된다.

아울러 매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시아 3대 축제 '보령머드축제'가 같은 기간 박람회장 내에서 통합 개최된다.

충청남도과 보령시는 이번 박람회를 머드산업과 해양치유산업 성장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해양 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포럼을 유치하고 국내외 저명인사와 기업 관계자를 초청, 산업발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청사진을 그린다.

박람회장에서 차로 1~2분만 가면 마주하게 될 보령해저터널도 관람객들이 빼놓지 말아야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2. 07. 16. ~ 08. 15.)

전시관	해양머드주제관	머드와 생태, 치유와 회복, 머드의 활용, 머드의 미래
	해양머드공영관	머드 해저가상 공간, MR시스템 구현 홀로그램 플랫폼
	해양머드&신산업관	머드산업존, 해양치유존, 그린뉴딜존, 해양바이오존 등
	해양레저&관광관	해양레포츠존, 해양레저존, 캠핑존, 해양문화관광존
	해양머드 웰니스관	<개인맞춤형 해양치유>아토피관, 스파(손·발·모발), 스파 기계 체험
프로그램	해양머드 체험관	머드공예존, 해양체험, 해양직업체험존, 바다놀이체험
	체험	머드축제체험, 머드공방체험, 갯벌체험, 머드익스트림체험
	특별 공연	어린이 공모전, 행운이벤트, 광역시도의 날, 버스킹, 특별공연

할 백미다. 서해의 지도를 바꾼 보령해저터널은 서해안에서 원산도까지 6.9km로,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거쳐 태안 안면도 최남단인 영목항까지 1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올여름 서해안을 찾

는 이들의 '관광 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재현 scottju@korea.kr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041-930-2824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국방의 힘, 계룡에서 펼쳐진다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세계 최초 종합군문화축제로
軍 의·식·주·무기·첨단기술
총망라한 문화콘텐츠 제공
장비·병영체험 등 부대행사 예정

에게 힘차게 울려 퍼질 예정이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7~23일 계룡시 일원에서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열린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활주로 일대 330,000㎡의 광활한 행사장에서 펼쳐진다.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군의 모든 의·식·주·무기·첨단기술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전망이다. 총 10개 국가 해외군악의장대의 참가를 목표로 진행되며, 규모나 내용면에서 기존의 군악대 공연대회가 주를 이뤘던 군 관련 행사와 차별화된 국제행사로서 치러질 예정이다.

엑스포는 방문객들에게 6개 전시관을 비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2022. 10. 07. ~ 10. 23.)

전시관	주제관(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국방관), 체험관(세계군문화생활관), 산업관(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특별 공연	국군방문의날, 충청남도 시·군의 날, 군악콘서트, 군문화 뮤지컬 갈라쇼
프로그램	경연	글로벌 K-POP경연대회, K-Military경연대회, Military코스프레, 드론경연대회
	부대	계룡산 안보등반, 계룡영내투어, 군무예·특공무술시범공연, 위문열차
	체험	장비탐승체험, 장비기동시범, 병영훈련체험, 가상사격훈련체험, 서바이벌 체험

롯해 부대 행사, 체험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6개 전시관은 테마별로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글로벌 K-POP, K-Military, Military코스프레, 드론 등 군 문화 관련 경연의 장이 펼쳐진다.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야외 군무기장비 전시장을 둘러보고, 장비탐승체험, 장비기동시범, 병영훈련체험, 가상사격훈련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계룡산 안보등반, 영내투어, 군무

예·특공무술시범공연, 위문열차 등 부대행사도 마련되며, 국제학술회의로서 계룡세계평화포럼도 함께 개최된다.

엑스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후에는 엑스포에 전시했던 프로그램을 활용·전시하여 엑스포의 상징성을 이어가고, 기존 병영체험과 연계해 지역관광콘텐츠의 메카가 될 '병영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병영체험관은 신도안면 일원 1만4258㎡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하반기에 건립될 예정으로 전시,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재현 scottju@korea.kr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042-840-3923

세계 최초 軍문화라는 독창적 콘텐츠를 갖고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국방수도 충남 계룡을 찾아온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딛고 2년 만에 열리는 행사에서 세계인들의 평화와 화합의 염원을 담은 팡파르가 충남 계룡의 하늘





정치의 계절, 원숙한 사회통합이 절실하다

내포칼럼



김동희 호서100년 경영연구소 원장

‘00결사반대’ 큼직하고 시뻘건 글씨로 쓰인 플래카드가 지선 도로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지난 주말 고향을 찾는 길에 목격한 풍경이다.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내 뜻이나 우리 집단의 이해에 반하면 결사반대가 일상화되었다.

‘결사반대’ 참 섬뜩하다.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너의 주장을, 당신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 이해의 충돌이나 불화인 갈등은 삶의 연속이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

삶의 한 부분인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접근보다는 우선 세의 과시가 어느새 더욱 익숙해진 현상이다. 80년대부터 거칠게 불어닥친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선명성 구호가 일상화된 것이다. 사실 일부 단체는 그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군중 동원과 날이 선 글귀의 현란한 깃발과 고성 스피커의 위협적인 악다구니로 무법천지를 만들어 왔고 현재도 곳곳에서 진행형이기도 하다. 결국에는 기업과 정부, 사회를 압박하여 육법 위에 ‘폐법’이 통하는 체계적인 조롱거리를 만들어 냈다.

사실 우리는 50~6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욕구와 대립, 이해 충돌의 분출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경우 300여 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실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갈등에 대한 대처 능력의 축적으로 결사반대보다는 사회적 합의 기능이 작동된다.

우리 주변에 만연한 갈등 사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통과 관문이기도 하다. 어떻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 관리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통합하며 발전하든가 아니면 추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사회통합의

첫 단추는 사적 갈등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내면에서 야기되는 갈등뿐만 아니라 이웃과 벌어진 분쟁과 다툼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왕왕 있어 사회문제가 되곤 한다.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층간 소음이나 차량 주차로 인한 시비는 이웃 간에 원수가 되고 공동체가 붕괴될 지경이다. 이웃 간의 갈등도 집단으로 번지고 관이 개입하게 되면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현실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요소라면 갈등의 순기능을 확장하여 긍정적인 사회에너지로 만들어야 할 때다. 갈등 해결의 힘은 원천적으로 나 자신이며 개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만큼 진정한 해결책은 당사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양보,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갈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되는 것임도 인정하여야 한다. 갈등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나와 이웃 간에도 더욱 화목할 수 있고 사회통합이라는 순기능이 발휘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회통합과 합의의 역량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잘 관리하여 분산되는 사회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만 한다.

개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집단이 갈등의 주체이자 ‘갈등 관리자’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야말로 ‘지속 가능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필연적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2022년 정치의 계절을 맞아 극심한 갈등 아닌 원숙한 사회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급격한 산업·민주화 거치며 사회 구성원 간 충돌 불가피 선진국行 마지막 관문 ‘갈등’

갈등의 해결은 당사자의 몫 구성원 간 이해·양보·배려가 긍정적 사회에너지로 승화돼

혁신적인 아이디어 동원하면 사회통합이라는 순기능 발휘

선도적인 ESG 경영 지원 나서야

정책에 민심을 더하다

올해 10개 기업 우선지원 나선 道 전체기업 적용할 평가지표와 ESG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해야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투명 경영을 수반한 기업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미 세계적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은 ESG 경영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지속가능 투자’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국가별 ESG 신용 영향 점수를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경영자 래리 핑

크 또한 ESG 요소를 투자 결정 기준으로 밝히며 ESG 경영을 강조하였다.

블랙록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의 주요 주주이므로 국내 대기업도 국내 중소기업 협력사 선정 시 ESG 요소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산업 생태계 조성(50억 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53억 원) ▲Net-Zero 유망기업 자금을 1200억 원 융자 지원하기로 하였다. 충청남도 경제실에서도 2022년 ESG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신증설, 마케팅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자금의 적기 조달을 위해 은행과 글로벌기업, 전문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ESG 평가가 우선 될 전망이다. 따라서 충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도는 선도적으로 ESG 경영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산업군별 평가지표를 완성하여, ESG 경영평가지표를 충남도 전체기업에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와 사회·경제구조 급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충남도내 기업의 ESG 경영’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충남도내 100인 이상 기업 ESG 경영 모델 구축’으로 충남도는 기후 위기에 앞장서는 ‘클린한 충남도’의 이미지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전윤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K뉴딜 국정자문위원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

이정록 시인의 서랍

이름을 불러 줄 때까지

이름 명(名)이라는 한자는 저녁 밑에 입이 있다.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손짓할 수 없기에 이름을 부른다. 어서 가서 저녁밥 먹자고 밥상머리로 데려간다. 작은 불빛을 가운데에 두고 환한 웃음이 피어난다. 이름 명 자를 보고 있으면 그 글자가 만들어진 먼 옛날 밤이 두런두런, 우렁우렁, 까르르 밀려온다. 어서 들어와 저녁 먹으란 말이 좋다. 어둠 속을 헤쳐 와서 어깨동무하는 목소리, 오늘은 저녁 식판을 들고 속으로 말한다.

엄마도 그만 돌아오셔서 저녁 드세요. 아버지도 엄마랑 밥 좀 같이 드세요. 야간 자습 끝나려면 두 시간 남았는데 야식 배달 시켜 놓으라고 전화한다. 나는 아파트 입구 놀이터에서 핸드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수다를 댄다. 누군가 나를 마중 나올 때까지. 이담에도 누가 내 이름을 불러 줄 때까지. 어둠 속을 서성거릴 거다. 나도 가로등 쪽으로 목을 내밀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거다.

‘까짓것’ 창비

이름이 운명의 칠십 퍼센트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이장님이 ‘李積緣(이정록)’이라고 쓰인 쪽지를 쥐고 면사무소로 가는 중에, ‘푸를 록(緣)’자가 번졌다. 직원이 호적등록부 표지에 있는 ‘기록할 록(緣)’ 자를 짚었다. 순간 한자가 바뀌었다. 이름에 운명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언가를 끝없이 쓴다. 교사이자, 작가이기 때문이다. ‘푸를 록(緣)’을 썼다면 무엇을 할까? 나무를 베어 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정록 시인

대한민국 축구의 메카 서천

생생현장리포트



김장환 서천신문 기자

서천군이 스포츠마케팅에 정점을 찍었다. 한산모시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축구 챔피언스리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8일 전국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 챔피언스리그 개최식이 열렸다.

경기는 내달 13일까지 주말 리그전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축구 종목에서 단발성 토너먼트 대회는 자주 개최된 바 있으나 리그전으로 열리는 전국 대회는 처음이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생겨난 유일한 구기 종목으로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축구는 남자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스포츠다.

서천군이 유치한 축구챔피언스리그는 국내 8곳의 최강팀과 64개 일반팀이 참가하는 전국 대회다. 전국 방송으로 중계되는 정성까지 기울이면 서천의 저변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군의 이 같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장점이 뒤따른다. 군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민간에 뭉칫돈이 풀려나감으로써 상당한 경기 진작을 수반한다는 점인데 실제로 서천군은

지난해 태권도대회와 역도대회 유치로 짭짤한 재미를 본 데 이어, 이번 축구 챔피언스리그 유치는 축구라는 종목의 선전 효과 또한 기대되며 스포츠마케팅의 지역 연계가 강한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축구도시’라는 이렇다 할 지역 연고가 없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서천군이 축구의 메카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서천군 도시 이미지의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회 유치에 있어 오세영 서천군체육회장과 김척수 서천군축구협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을 비롯해 우양과 선진뷰티사이언스, 한산소곡주, 동서천농협, 서천군수협, 바다로21, 종천주조 등 지역 기업·기관들의 아낌없는 협조에도 박수를 보낸다.

특히 서천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주)우양은 지난해 축구 팀 감독 선발을 마치고 회사 내 축구 연습구장 건립에 이어 전문 선수 영입에 들어간 상태로 조만간 전문 실업팀을 창단할 예정이다. 우양의 실업팀 창단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내 축구 저변 확대와 더불어 서천군이 대한민국의 축구 메카로 거듭나는데 상당히 기여할 전망이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지속적인 대회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천군과 지역 체육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때다.

개관 20주년 고남패총박물관이 넓어진다

1·2 전시관 연결·통합, 879㎡ 확장
방송 스튜디오 구축·주차장 확대

[태안]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태안 고남패총박물관이 증축된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남패총박물관 증축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2 전시관을 연결·통합하고 879㎡를 증축하는 공사에 돌입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은 2025년까지 국비 27억여 원을 포함한 총 68억 8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증축 공사에 나

선다. 분리된 두 전시관을 하나로 통합되면 기존 1610㎡인 전시공간이 2489㎡로 늘어난다.

아울러 방송시설을 갖춘 오픈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현재 34면 규모의 주차장을 84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직 증축 대신 수평 증축 공법을 사용하고 국도 77호선 연결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학예연구사를 추가 채용하는 한편, 한양대·한서대 박물관과 긴밀히 협의해 유물 확보에 나서는 등 외형과 내실을 모두 갖춘 증축에 나선다는 각오다.

/태안군 제공



오는 2025년 완공될 태안 고남패총박물관 조감도

충청인의 詩香

새싹에게

흙더미를 비집고
엷되게 생을 시작하는
어린 생명체

해맑게 웃으며
거침없이 허공을 붙든 저 몸짓
우리도 태어날 때
다 그랬겠지

한가득 안긴 세월이 변하고
부푼 희망을 치고 간 바람이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복잡한 세상을 배웠지

아직은 띄웠뿐인 너
그리고 어렵게 남은 힘겨운 고비
눈을 크게 떠야 할 거야
조금 더 귀를 높이 세워야 할 거야

네 안에 키우는
그 고결한 이상을 위해서라면



나동수 시인

·(사)한국문인협회 문학조형물 조성위원 역임
·시집 '백령도 친구', '종이방', '그림자'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스탬프 찍고 기념품 받자

10월까지 충청권 박물관·미술관
10곳 방문 인증하면 기념품 지급

[예산]충남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은 국립공주박물관과 함께 '스탬프를 찾아 떠나는 박물관·미술관 여행'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남·세종·대전 등 충청권 37개 박물관미술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람객이 참여기관 중 10개 기관을 방문해 스탬

프를 모으면 10번째 기관에서 기념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탬프투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윤봉길의사기념관 안내데스크에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 책자가 비치돼 있다.

지나해 11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윤봉길의사기념관은 오는 내달 20일까지 '윤봉길의사 김구선생과 다시만나다'를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예산군 제공



윤봉길의사기념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책자와 스탬프

우리나라 탈 26종 200점을 책 한 권에

한국민속극박물관, '우리나라 탈' 발간
개관 이래 소장했던 탈 이야기 엮어

[공주]한국민속극박물관이 우리의 탈 26종 200점을 정리해 '우리나라 탈'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탈은 1996년 개관 이래 한국민속극박물관이 소장했던 우리 탈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한국민속극박물관 심하용 관장은 조부인 탈 제작자 심이석(1912~2002), 부친인 민속학자 심우성(1934~2018)이 평생에 걸쳐 만들고, 수집한 탈들을 박옥수 사진작가의 사진과 함께 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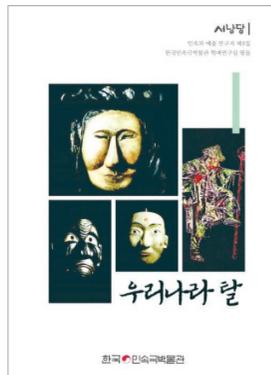
엮었다. 탈의 종류는 하회별신굿·병산 탈·본산대 탈·고성 탈·하회별신굿·병산 탈·본산대 탈·고성 탈·나무 방상씨 탈·백제기악탈·열두 띠탈·키 탈·짚 방상씨 탈· 등 총 26종이다.

아울러 심이석의 '나무로 깎은 얼굴, 그 다양한 표정의 유산들'이란 탈 제작자 관점에서 바라본 탈의 도상 해설과 함께, 그가 복원한 우리나라 나무 탈 33점·백제기악탈 15점의 사진이 실렸다. 또 민속학자 심우성이 전국을 답사하며 수집한 국가 무형 문화재 탈놀이 사진과 함께 '탈은 왜 생겨났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글이 실렸다.

심 관장은 "우리는 역사의 소산인 전통 탈에

서 보게 되는 별거벗은 자화상을 통해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고, 우리의 탈 유산과 주변 문화권의 탈 유산을 견줄 수 있다"며 "우리 문화권의 발자취를 살피며,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찾는 참고서로서 이 책의 발간은 주목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신용희/금강뉴스



우리나라의 전통 탈 26종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우리나라 탈'



'공주가 좋다' 4번째 시리즈 '근대도시 공주의 탄생' 발간

[공주]충남 공주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공주만의 이야기를 담은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의 네 번째 도서인 '근대도시 공주의 탄생'을 발간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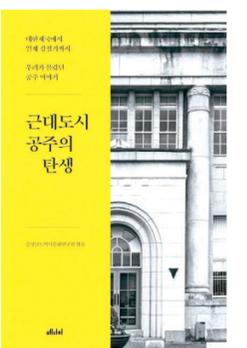
이번 도서는 근대 공주라는 공간에서 공주와 공주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근대도시 공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반세기에 걸쳐 우리가 몰랐던 공주의 이야기가 국민 322쪽에 걸쳐 자세히 소개됐다.

가격은 15000원으로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시는 올해 계룡산과 공주의 유립, 동학농민운동 등 공주의 풍부한 역사자원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주가 좋다' 도서 5, 6권을 발간할 예정이다.

/공주시 제공



1182년 생 성불사 느티나무, 나이에 역사를 품다

윤성희의 만감萬感

800년 세월 애간장 녹듯 텅 빈 속
역사의 각고와 신산 견뎌낸 흔적
거친 나이에 짙어지고 수도하는 고목



올해로 수령 840년이 된 성불사 느티나무

천안에는 성불사가 있다. 이은상이 시를 짓고 흥난파가 곡을 넣은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 하는 그 성불사가 아니다. 가곡 속의 성불사는 황해북도 사리원에 있지만, 천안의 성불사는 안서동 각원사 가는 길의 중간을 꺾어 올라간 태조산 종턱에 있다.

성불사는 1930년대 농촌문학의 최고봉이라는 장편소설 『고향』이 집필된 장소다. 소설가 민촌 이기영은 생계의 막막함에 직면하여 원고지 보따리만 짊어진 채 허위허위 가파른 산길을 올라 이곳 요사체에 머물렀다. 그리고 40일의 밤낮을 바쳐 타고한 작품을 꺼내고 다시 상경길에 올랐다.

천안 성불사에는, 만세를 부르듯이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가는 민촌을 합장 배웅했을 것 같은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다. 1982년에 천안시 보호수로 지정된 노목(老木)이다.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모르지만 2019년 기준 수령이 837년이라는 표지판이 옆에 서 있다. 계산해 보니 1182년생이다.

가까이 다가가 나무를 들여다본다. 푸른 꽃대군 같은 젊음은 이제 먼 추억이 돼 버렸고, 생자필멸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복종할 준비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보여준다.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한 얼마나 힘든

신산과 각고를 견뎌야 하는 것인지를 몸통 여기저기 박혀 있는 웅이들이 증언하고 있다.

나무는 요임금 때 800년을 살았다는 전설의 인물 팽조를 떠올린다. 팽조는 평생을 살면서 49차례나 상처(喪妻)를 하였고, 54명의 자식들이 먼저 죽었다고 한다. 오래 산 만큼 속이 그만큼 썩어들었을 것이다. 성불사의 느티나무도 속이 다 비어 있다. 840년 생애 동안 애간장이 다 녹아내렸다는 증거다.

1182년생 느티나무는 고려 백성이 어느 날 조선 백성으로 바뀌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을 게다. 역사의 구석구석, 속속들이를 말 없는 나이에 안에 간직하면서 느티나무는 천년 고찰 성불사 앞에서 묵언수행 하였고리라.

소설 『고향』의 태생을 지켜본 나무, 민초들의 발원을 나이에 새겨 넣은 나무. 팔백마흔 살을 잡수신 느티나무는 태조산 성불사의 증언자이자 수도승이었다.



윤성희 문학평론가

충남도립 더 행복한 충남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을 위한 도정을 잇다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안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공유 친환경 박스 활용해 택배 스티로폼 대체했다

우리마을의 기분좋은 변화(6)

- 공유형 친환경 택배 박스

다회용·호환·재활용 배출 가능한 표준형 친환경 공유 박스 보급해 택배 스티로폼·비닐 쓰레기 줄여

‘택배 배송 후 바로 버려지는 스티로폼 박스를 다회용으로 쓸 수 있다면 어떨까?’

전례 없던 감염병 사태로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스티로폼 박스와 비닐 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간단한 공금증 하나에서 해결책이 도출됐다.

대안은 지난해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팀으로 선정돼 ‘공유형 친환



경 택배 박스를 통한 쓰레기 배출 감소' 사업을 진행한 사단법인 평생학습공동체 오만이 제시했다.

오만은 딱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스티로폼 쓰레기를 줄일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중 기존에 개발됐던 친환경 플라스틱 박스에 주목했다. 얼핏보면 스티로폼과 유사한 재질처럼 보이지만, 친환경 소재인 발포성PE(폴리에틸렌)로 내구성이 더 뛰어났다. 최대 500회 재사용이 가능하고, 버릴 때도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제품 생산 가격은 스티로폼 대비 비쌌지만 쓰레기 처리와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사회



(사)평생학습공동체 오만이 제작한 친환경 공유박스. 기존 택배 배송 시 사용되는 스티로폼 박스, 비닐봉지 등을 대체할 수 있다.

적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오만은 이를 활용해 ▲친환경 소비자용 공유결제박스 ▲친환경 사업자용 공유박스 ▲친환경 보온공유박스 등 총 3가지 유형의 표준화된 공유박스를 제작해 우선 보령중앙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급에 나섰다.

공유박스는 기존 스티로폼의 자리를

효과적으로 대체했다. 상인들이 음식점으로 제품을 배송할 때 스티로폼 박스나 비닐 대신 사업자용 공유박스나 보온공유박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이 표준화돼 상점 간 호환도 가능했다. 항상 시장 한편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박스, 비닐봉지 쓰레기는 눈에 띄게 줄었다.

소비자들을 위한 친환경 공유결제박스도 호응을 얻었다. 상점에서 산 물건을 골개박스로 옮기고 난 뒤 반납하면 무료주차권을 제공해 쓰레기 배출 감소와 편리성, 박스 회수율 제고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

(사)평생학습공동체 오만은 점진적으로 친환경 공유박스 사용 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박스 외에도 다회용 컵과 도시락 용기 등 제품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최재현 오만 이사장은 “일회용 쓰레기 배출을 포함한 환경문제는 단지 특정 지역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누가 해결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나의 의무’라고 생각할 때 근본적 대책이 마련된다”며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의제가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암 투병 공무원이 전하는 잔잔한 감동

홍성군청 오준석 행정복지국장 세 번의 암 극복 에세이로 펴내

[홍성] “세 번이나 찾아온 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남 홍성군청 오준석 행정복지국장(사진)이 세 번의 암을 극복하며 겪은 투병기가 에세이로 발간돼 화제가 모은다. 오 국장은 30대에 위암을 극복했고, 50대에는 직장암과 대장암까지 투병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배려와 관심을 가져준 이들에

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에세이 제목을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정했다”고 밝혔다.

에세이에는 만 열아홉의 나이에 공직에 입문한 오 국장이 암과 싸우며 4급 서기관이 되기까지 겪었던 경험과 삶에 대한 의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다.

이어 “이겨내기 힘든 암 수술 과정이었지만 저의 투병기를 읽으면서 지금도 투병 중인 누군가가 용기를 얻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최승효에게



이 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관우/홍주신문



“제 이름은 수리부엉이입니다” [강진]충남 당진시 채운동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됐다. 시는 수리부엉이 보호를 위해 학교 수영장 부지는 채운공원 일부에 조성하고, 기존 수영장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보전하기로 했다. 이석준/당진신문

톡 쏘는 청양 전통주 매력을 알리다

이영채 씨 개발 청양 칠장주 3차 숙성거쳐 부드러운 청량감

[청양]장평면 분향리에는 좋은 품질의 재료로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주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 있다. 칠장주를 빚는 ‘술가게 백제인주조(대표 장정화·이영채)’다.

“칠장주는 옛 도립사지 무관학교에서 상처 입은 군관들이 약술로 마시던 것으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영채 개발자는 양조장을 하던 조

부의 비법을 가지고 물 좋은 지역에서 술을 제조하고 싶은 마음에 1943년 1월에 설립된 장평양조장을 인수했다.

칠장주 탁주는 직접 농사지는 청양 지역 특산물인 구기자·알밤·맥문동·참쌀·백미·보리·우리밀 등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다.

칠장주는 다른 탁주와 달리 3차 숙성 과정을 거쳐 진하고 풍부한 맛을 낸다.

유산균 함유량이 야쿠르트의 30배, 탄산불륨은 콜라, 사이다 4.6%에 가까운 3.6%로 톡 쏘는 청량감과 부드러운 목 넘김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



청양의 전통주 ‘칠장주’ 개발자인 이영채 대표입니다.

이영채 개발자는 칠장주를 주제로 술박물관도 만들고 공장 규모화를 통해 체계적인 전통주 생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동영/청양신문

개천에서 용 나기는 끝났나?



사서들의 서재



《강원택 외/푸른길출판사/2018》

한 지 한 세대가 지났다. 과거 권위주의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됐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확장됐으나, 지난 20여 년간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불평등이 악화하는 모순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저자는 이야기한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청년세대에서 격화되는 젠더 갈등은 불안정을 양산하고, 종래의 성역할 분업과 젠더질서의 잔존 등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한꺼번에 아노미적으로 얽혀 오늘날 한국 사회경제의 상황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위기와 변화, 그 어디쯤 서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나날이 벌어지는 경제·사회·지역적 격차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과 계층 상승의 기회마저 줄어드는 현실이다.

이 같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다섯 명의 사회과학자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격차, 불평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를 진단해보는 책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소개한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이행을

과연 대한민국은 순항 중인 것일까? 사회 갈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재열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사서

청년농이 키운 비타베리 케이크 맛보세요

SPC그룹, 파리바게뜨 케이크에 청년농가서 산 비타베리 사용

[논산]충남 논산 딸기 농가의 청년농부들과 종합식품 대기업이 손을 맞잡고 신제품 ‘비타베리’ 확대에 나섰다.

SPC그룹은 충청남도 논산 딸기 농가와 청년농부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SPC그룹은 딸기농가가 신제품 재배 확대와 품질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힘을 보탬 계획이다.



논산 딸기농장의 청년농부가 비타베리와 비타베리로 만든 케이크를 들고 있다. 사진/SPC그룹 제공

특히 파리바게뜨를 통해 새롭게 출시한 케이크 ‘비타베리 딸기 프레지에’에 논산 딸기와 비타베리 딸기를 사용한다. 이를 위해 논산 농가 재배

딸기 80톤을 수매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비타베리 재배 청년농부를 이번 신제품 홍보모델로도 기용했다. /도정신문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월 18일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도의회 개원 70주년, 인사권 독립·입법 전문성 높인다

정책지원관 적기 선발·배치하고
입법평가팀 신설, 전문성 강화
시·군의회와 협력체제로 소통 강화
42명 의원 '불원만리'로 최선 다짐

도의회는 개원 70주년을 맞은 올해 체감도 높은 의정 성과 창출에 나선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 인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정책지원관을 적기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팀을 신설하

고,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을 기반으로 입법 평가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최 우수등급을 달성한 도의회는 평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자치분권 또 다른 주체인 시·군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의 다양한 주체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원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공간 운용을 위해 청사 재배치를 본격 추진한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도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2명 의원 모두 불원만리(不遠萬里)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

회기별	주요 안건
제334회 임시회 1. 18~1. 27	○ 2022 주요업무 계획 보고 ○ 2021회계연도 결산감사 위원 선임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335회 임시회 3. 15~3. 29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결산감사 [4. 15(금) ~ 5. 4(수)] : 20일	
제336회 정례회 6. 8~6. 22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자치분권 기틀 다진 2021년

지난 10월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결정
예산 대토론회서 도민 의견 반영

도의회는 지난 1년간 8회, 127일간 회기 운영을 통해 총 4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전 도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등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했다. 또 조례 사후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 188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조례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확대, 예산분석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가결 조례의 재정소요 점검을 추진했다. 올해 예산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어 도민 의견도 반영했다.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의 기틀도 다졌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자치분권2.0 추진단과 자치분권강화 소위원회 운영, 거버넌스센터 협약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민주주의에 이바지했다. 도민과의 소통도 확대했다. 지난해 신설한 홍보담당관실을 통해 언론과 SNS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민원상담소 16곳 운영을 본격화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제안 건의안 의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8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명선 의장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입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52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 상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도의회 인사위원회 출범... '인사권 독립' 첫발

조직 전문가 등 9명 위촉
공무원 인사 심의·의결 역할

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뒀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1월 13일 공식적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인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조직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



김명선 의장

되었으며, 오늘부터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것이다. 앞으로는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교육·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의원시론

미래성장동력 수소산업 적극 육성해야



이계양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그린 수소 경제체제 탈바꿈 위해
충남 지리·지정학적 위상 활용해
수소 생산·보급의 거점 거둬야

사람 중심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낳은 부작용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한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 노동의 가치와 안전 경시 등 자본주의는 사람 중심이 아닌 물질만능주의였다. 약육강식의 경쟁 속으로 사람을 내민다. 그 결과 양극화는 심화하고 대립과 갈등은 커졌다. 일부 기업은 경영권을 가진 소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사람 중심의 경제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요즘 ESG가 부각된다.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Environment),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Social),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 체계인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다. 기업

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인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인정받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은 수소산업 활성화에서도 나타난다. 빈발하는 자연재해, 환경오염·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경제에서 그린 수소 경제체제로의 탈바꿈은 인류가 나아가 갈 방향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를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수소차 생산 확대, 수소 시범도시 등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수소경제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은 우리나라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지정학적 위상을 활용해 수소경제 사회가 도래할 시 수소 생산·보급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미래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미래 세대에 소중함 삶의 터전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성인지 눈으로 보아야 일상이 바뀐다

성인지 감수성 충전소

개인이 겪은 불편한 경험이
성인지 관점 정책의 출발점
도민 삶 면면 살피고 개선해야



성인지 관점에서 건축물을 모니터링할 때는 보행로·주차장·화장실 등 공간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지난해 한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한 위원은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가 외부에서 보이도록 설치돼 있는가?'라는 점검 항목을 언급하며, "평소 막연히 불편하게 느꼈는데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에 방문해보니 막연함은 선명해졌고, 화장실 문의 방향을 바꾸는 방안이 명쾌하게 와닿았다"고 했다. 개인 삶의 경험은 성인지 관점의 정책을 시작하는 핵심이 된다. 성인지 정책 추진은 성별 신체 차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 사회적 지위나 경제활동 참여에서의 격차 등 도민 삶 면면을 살피고 개선하는 작업이다. 성별영향평가가 대표적인 제도다. 충남도에서도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굴된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지역화 교육자료를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했다.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삽화들이 개선됐고, 남성 중심 역사교재에 여성 역사인물과 독립운동 사례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한 지자체는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에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조사항목을 추가했다. 그 결과 콩 정전기·팽공 탈피기 등 밭 작업 비중이 높은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구입 계획이 수립됐다. 성인지 정책은 정성이 필요하고 수고로운 일이다. 이 일에 가까이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공감의 기운을 얻는다.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정성과 수고로움이 충남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태희원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장



제334회 임시회 5분발언·입법예고·건의안

노후농기계 통합관리방안 촉구



안정현 의원은(아산4)은 관공서 불용품 가운데 노후농기계의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관공서 불용장비는 실질적인 사용 시간이 짧아 농업현장에서 사용된 기계보다 내구도가 우위에 있어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며 “농기계 매매상이 이를 대량 구입 후 농번기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상황으로 실 수요자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시군의 협약을 통한 자산의 관리 전환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관련 정책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3대 명약 구기자’ 육성정책 촉구



김명숙 의원은(청양)은 5분발언에서 구기자를 전국 대표 특산물로 키우기 위한 충남 구기자 산업의 다방면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남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고령농가도 재배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산업을 다방면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결과, 구기자가 농지면적 10ha당 1522만 9000원으로, 38개 작목 중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구기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 충남특산물인 구기자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대책 미흡



방한일 의원(예산1)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해야 하는 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하는데, 대체주차장을 확보 못해 주민 민원이 계속된다”며 “시·군의 업무로 치부하지 말고 각 시·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홍주성지 유네스코 등재 촉구



도의회는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문화유산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홍주순교성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겼다.

조 의원은 “홍주성지는 2020년 시성·시복식 심사위원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성지로 선정됐고, 홍주천년여행길에도 성주성지순례길이 포함될 정도로 군의 대표 문화유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홍주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해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 객사와 진영동헌 문화재 구역 확대지정 등 관광자원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교육 위한 인터넷망 고도화 시급해



김연 의원은(천안7)은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육현장에 학습결손, 기초학력 저하 등 교육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도내 25개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학내망 장비속도가 10Gbps인 학교는 한 곳 이었고, 24개 학교에서 장비지원 속도가 1Gbps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디지털 환경의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망 고도화 사업을 민간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안아산 KTX역-R&D지구 활성화



이공휘 의원(천안4)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천안아산KTX역세권과 R&D집적지구 성공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KTX역과 R&D지구 사이의 선로 하부 활용방안을 모색했고, ‘천안아산KTX역-R&D집적지구 도보 통로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KTX역사의 선로 하부는 구조적 안정성 검토도 마친 만큼, 무빙워크 등을 활용한 도보 접근이 가능하다”며 “KTX역사 상업화·업무지원시설 활용은 전국 최초의 시도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대선공약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등하갯길 안전대책 마련 촉구



홍기후 의원(당진1)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내 등하갯길 학생 교통사고 사망은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지자체는 공사비, 교육청과 학교는 담장으로 막힌 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통학로가 없거나 비좁아 위험한 등하갯길에 내몰린 학생들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고, 기관 간의 자산일 뿐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다면 공유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번기 인력 확보 대책 마련해야



정광섭 의원(태안2)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간(90일, 150일)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충남은 농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 어렵고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합법적인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지원팀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늘린다



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례안은 다자녀학생의 기준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교육청 관할학교의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충남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교육청만 주소지 제한을 두고 있다”며 “개정안이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공무원 고용안정·권리보장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복지·후생 등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수 결정 ▲해고 등의 제한 ▲고용보장 ▲휴직 ▲후생복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산업안전 ▲재해보상 ▲복무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합리적 처우개선으로 공무원이 소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 이북5도민 권익보호 지원한다



도의회는 이북5도민들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북5도민’은 8·15 광복 후 이북5도에서 남하해 거주하는 주민과 배우자,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방향위로 사업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협력체계 구축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책무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북5도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며 “이들이 융화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유실물 안전관리 나선다



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유실물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센터의 설치·운영 ▲추진 사업 및 사업비 지원 ▲수탁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이종화 의원은 “매년 경찰서에 접수되는 습득물은 증가하지만, 반환되는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애타게 찾는 분실물이 주인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경찰단체 지원 근거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경찰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봉사활동 수행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단체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시민경찰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은 시·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근거 마련



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율과 한도액을 규정했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금액은 규정된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위한 지역협력 시동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11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양금봉 위원장(서천2)은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해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계 복원 ▲금강하구 농·공용수 취수원 이전 등 농·공용수 공급대안 마련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금강하구 수산업 복원 ▲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금강하구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충남-전북 해상경계 개선 촉구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어청도, 개야도, 연도, 죽도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해상경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업해역 협소, 새만금 개발과 북측도류제 건설로 인해 서천 어업인들이 먼바다로 돌아가 조업활동을 해야만 한다.

전 의원은 “어민이 조업 중 전북해역에 들어가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권까지 위협받는다”며 “정부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충남도, 서천군과 해상도계 조정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
박지현 가수

그룹 V.O.S 육동이 아빠, 사랑이 비결입니다.

‘보고 싶은 날엔...’, ‘큰 일이다’ 등의 히트곡을 가진 가수 박지현.
가수와 아빠, 일·가정 양립의 롤모델이 된 다동이 아빠입니다.
V.O.S라는 그룹명보다 ‘육남매 아빠’가 먼저인 ‘보통 아빠’이자 ‘국민 아빠’입니다.
다동이를 키우는 힘의 비결은 오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넘치게 되면 결국 해내게 됩니다.”

가족은 존재 자체로 기쁘고 행복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려겠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에는 원하시는 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 보내세요.